



“허준도 스승 위해 달였다던 비파 효능 알리고 싶어요”

아버지 이어 비파로 건강 전도 김안나 박사

“비파는 갈증을 풀어주고 폐의 기(氣)를 다스리며 술독을 풀어준다. 산후 입마름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물론 비파를 달인 즙을 마시면 갈질(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본조강목 중)

‘비파’는 일반적으로 생소한 단어다. 목포의 시복(市木)이 비파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살구 열매와 비슷한 모양의 노란색 열매와 암술성 식물 특유의 잎째도 낯설게만 보인다. 하지만 비파는 동의보감의 허준이 스승 유의래에 위암에 걸려 위독할 때 잎을 달여 복용시킬 만큼 민간에서는 예로부터 널리 알려진 영약이다.

2011년 작고한 고(故) 김장우씨는 1955년부터 50여 년 동안 비파의 효능을 알려온 ‘비파박사’였다. 무

안 망운 농장에 6만여 그루의 비파 나무를 심고 여기서 수확한 열매와 잎으로 20여 가지가 넘는 비파 제품을 개발했다. 비파가 지역특화작목이 된 완도에 비파를 알린 것도 그다. 한의학의 뜻과 비파를 접목 시킨 ‘비파생기토탕죽뜸봉’ 등 특히도 3개나 출원한 만큼 아이디어도 넘쳤다.

그의 딸 김안나(45) 비파생기나 대표는 그런 아버지와 똑 닮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2011년부터 전국에서 하나뿐인 ‘비파’ 사업체를 이끌고 있다. 본래 그녀의 전공은 생물학이었다. 초당대 간호 학과에서 10여 년간 학생에게 기초 의학을 가르쳤던 그녀가 과감히 비파 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보다 ‘비파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비파는 많은 연구를 통해 효능이 입증됐습니다. 2년 전 목포대 김현아 교수팀과 공동 진행한 연구에서 비교대상인 흥삼보다 간암에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팀은 유방암에도 비파의 치료 효과를 검증했죠. 암은 물론 면역력 증가, 아토피, 당뇨, 비만 등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낮은 인지도 탓에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각종 포럼에 참석해 비파를 알리곤 있지만, 아직 쇼핑몰 판매와 유기농 매장 공급으로 겨우 사업체를 유지할 정도의 수입을 벌 뿐, 그동안 비파 사업에 쏟아부은 자금은 회수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사업 예산의 70%를 연구·개발에 쏟아부을 만큼 뚝심 있는 경영 방침을 고수한다. 그녀는 “아버지가 ‘돈보다 아픈 사람과 타인을 위해 비파 사업을 해라’고 말씀하셨다. 지금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지만, 나중엔 ‘비파치유센터’를 만들어 건강이 안 좋은 어르신들이 비파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그녀는 전남에 비파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터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바다와 접해 있는 전남의 이점을 살려 비파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통한 녹조 해결과 우복가사리와 비파의 성분 분석을 통한 항 비만 연구, 바이러스 등이 해양 생물의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비파 성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광주 새날학교에 위문품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는 최근 광주시 교육청(교육감 강희국)과 함께 대안학교인 광주 새날학교에 사랑의 쌀 등 총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 <광주농협 제공>

조선대 호남권재활병원 ‘사랑의 쌀’ 70포



조선대학교 호남권재활병원(병원장 조남수)은 최근 광주공원 사랑의 쉼터를 운영하는 노인과 청소년 공동체 빛들희에 쌀 70포(20kg 50포, 10kg 20포)를 기증했다. <조선대학교 병원 제공>

LH, 영구임대주택 거주 독거노인 목욕봉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철)는 최근 LH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생활비를 전달하고, 청소와 목욕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킬리만자로서 정원박람회 성공을 외치다

순천 모아산악회 회원들, 등정후 플래카드 들며 홍보

순천지역 산악회 회원들이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해발 5895m)에서 ‘2013순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인 순천시를 홍보하고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 모아산악회 대원 5명은 지난달 25일 인천공항에서 아프리카 케냐나이로비로 출국해 27일부터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마차메 루트를 통해 등반을 시작했다. 대원들은 지난 31일 밤 11시20분께(현지 시각) 킬리만자로 등정을 위한 마지막 캠핑인 바라푸 캠핑(해발 4600미터)을 출발. 지난 1일 새벽 5시40분께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긴 끝에 6시간 만에 스텔라 포인트(해발 5739미터)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들은 ‘고소중에 시달리며 급경사 오르막과 가파른 산막지대를 지나면서 정상이 손에 넣을 듯 기깝게 보이는데도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다’면서 ‘마음속으로 스텔라 포인트(Stella Point)까지 올라가리라는 의지로 죽을힘을 다해 걸어갔다’고 회고했다.

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들은 ‘고소중에 시달리며 급경사 오르막과 가파른 산막지대를 지나면서 정상이 손에 넣을 듯 기깝게 보이는데도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다’면서 ‘마음속으로 스텔라 포인트(Stella Point)까지 올라가리라는 의지로 죽을힘을 다해 걸어갔다’고 회고했다.

이곳에서 대원들은 ‘2013순천 국제정원박람회’ 플래카드를 들고 외국인들에게 순천만정원박람회를 알리는 홍보사절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또 웜메카 루트로 하산한 후 지난 3일부터 다음날까지 세계 최대 분화구인 ‘등고통고로’ 국립공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순천만정원박람회의 소개와 개최취지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 대원은 “이번 원정산행에 나선 대원 5명 모두 진심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기원했다”며 “박람회 준비를 하시는 관계자분들께도 노고를 치하드린다”고 말했다.



국제정원박람회의 소개와 개최취지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 대원은 “이번 원정산행에 나선 대원 5명 모두 진심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기원했다”며 “박람회 준비를 하시는 관계자분들께도 노고를 치하드린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지기자 ejkim@kwangju.co.kr

김종국-배길예 부부·이철동-이미희 부부

전남농협 ‘이달의 새농민상’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종수)는 12일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김종국(56·배길예(50·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씨 부부와 이철동(50·이미희(46·광주시 광산구 요기동)씨 부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동농장을’ 운영하는 김씨 부부는 진도군의 대표적 노지 체소작물인 대파를 과학영농으로 최상품만 출하하는 등 단일 품목 중 최고의 가격을 받아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척박한 토양과 관행 농업 위주인 지역 대파 농가에 기술

지도를 하고 공동출하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와 수취가격 상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제든이네 농장을’ 운영하는 이씨 부부는 귀농 후 10마리의 송아지로 시작해 현재 190여 마리의 한우를 키우면서 각종 부산물을 이용해 자가배합 기술로 만든 밭효사료를 전파해 주위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줬다.

우량 소의 정액을 받아 직접 인공수정을 통한 원가질감과 자가배합기로 이용한 고급육을 출하중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김종국 배길예
이철동 이미희

울랄라세션 임윤택 투병 끝 별세

슈퍼스타K 시즌3의 우승자인 그룹 울랄라세션의 리더 임윤택이 지난 11일 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33세.

소속사 울랄라컴퍼니는 “8일 오후 8시42분께 가족과 울랄라세션 멤버들이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서울 출신인 고인은 박승일·김명훈·박광선 등과 그룹 울랄라세션을 결성, 2011년 엠넷(Mnet) ‘슈퍼스타 K 3’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가수 데뷔의 꿈을 이뤘다. 방송 당시에도 위암 투병 중이었던 고인은 여러 방송 매체에 출연해 ‘긍정의 힘’을 역설하며 ‘희망 전도사’로 불렸다.

지난해 7월에는 자전 세이어집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를 펴냈고, 8월에는 세 살 연하의 혜어디자이너 이혜림 씨와 백년가약을 맺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고인은 지난해 음반·공연 기획사 ‘울랄라 컴퍼니’를 통해 미니 앨범인 ‘울랄라 세이어션(ULALA SENSATION)’을 냈다. /연합뉴스



최복록씨 별세 경시·유옥(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천석·온석·필석·석석(대목건설회장)·승애·승이·승덕씨 부친상=발인 14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이금주씨 별세 기형서·차서·현

선·관서·순자·영희·정희·성희씨 모친상=발인 14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주남엽씨 별세 오판진·판홍·판용씨 모친상=발인 14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김종순씨 차남 김명준군 김진구(상일여고 교장)·김형남(전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씨 장녀 지승양 =16일(토) 오후 3시 흘리데이인호텔 3층 컨벤션홀.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13회 동창회(회장 김성국) 월례회 =13일(수) 오후 6시 진도회관 062-234-7892.

▲북성중 제16회 동창회(회장 최원섭) 월례회 =18일(월) 오후 7시 수립식당 062-223-0028.

일련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216-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 =광주시에 거주하는 신인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지침)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

6050, 광산센터 062-942-0204.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이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이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420, 4322.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수련관 생활관 호남지역 기술 및 위기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복지비단, 피부관리 센터 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보관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대한노인회 광주 취업지원센터 일자리 안내 =광주시에 거주하는 신인 건강한 60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지침) 동구센터 062-223-8324, 서구센터 062-431-4529, 남구센터 062-432-0947, 북구센터 062-433-

분야는 수지침·동화구연, 교육일정은 3월부터 주 1회.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062-608-2425.

▲경로당 문화활동 전문 강사=모집대상은 건강증진·여가프로그램 진행 가능자, 활동 장소는 동구 관내 경로당.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062-608-2425.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23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대 도서관 5층. 양택, 음택, 수택, 남경·임향론, 비결록·명당, 장묘요강 등 진정한 이론과 현상 영상 강의(책자무료제공) 010-3609-8117, 062-670-2161, 2135.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과 화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심청재가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증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당. 062-264-7748, 018-690-5356.

▲제15기 한국문화학교 수강생=판소리·민요교실·전통고전무용·풍수지리·생활역학·사진·노래교실·명상·복불한·행복한 가정만들기 등 11개 과목을 개설. 광주시 북구 중흥동 북구청 생활문화센터 4층 062-527-7701.

부음

</div